**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16,**

**사도행전 15-16**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친 Dr. Craig Keener입니다. 16회기, 사도행전 15장과 16장입니다.

몇 시간 전에 제가 너무 흥분해서 머리카락이 다 빠졌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머리를 잘랐어요. 그러나 나는 사도행전 15장의 마지막 문단으로 넘어가겠다고 여러분에게 약속했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식욕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법령과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기다리셔야 하기 때문에 식욕이 왕성해져서 다행입니다.

이것은 자주 열렸던 논쟁이고 나의 이전 토론은 이 논쟁에 대한 나의 결론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러나 논쟁은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가 갈라디아서 2장과 같은 시기인지, 아니면 갈라디아서 1장과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장부터 10장은 사도행전 15장이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30절과 12장 25절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헌금을 가지고 가는 때입니다. 그것은 윌리엄 램지(William Ramsey)가 주관하고 있으며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학자들과 일부 다른 학자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은 사도행전 15장과 동일하며, 19세기 복음주의 학자인 JB 라이트풋(JB Lightfoot)과 나를 포함한 오늘날의 많은 학자들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견해와 같고, 다른 많은 학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학자들이겠지만, 약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장부터 10장은 둘 다 서로 다른 두 출처에서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 견해가 아니다. 나는 단지 여러분에게 견해를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은 사도행전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에 사도행전 11장이나 다른 곳에서 추가된 요소가 추가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1:30의 기근 방문을 지지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러한 주장을 제시하고 내가 그 주장에 설득되지 않는 이유를 제시할 것입니다. 물론 당신은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가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기근의 방문을 생략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글쎄, 갈라디아서에서는 그것을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사도들로부터의 독립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순으로 사도행전과 같다면 그들은 그 시점에 숨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전해졌으면 언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글쎄, 그들은 갈라디아서가 기록될 때 이미 법령이 내려졌다면 그 법령을 언급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갈라디아서와 데이트한 시기와 상관없이,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분명히 공의회의 법령이 만들어진 후에 나온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법령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내려졌을 당시 갈라디아에서는 아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에서 멀어질수록 중앙집권적 권위에 호소하는 것보다 기본 원리에 호소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었습니다. 글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기근 방문이 아니라 사도행전 15장과 동일시하면 불일치가 너무 많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상황은 더 나쁩니다. 기근 방문으로 확인하면 불일치가 더 커집니다. 사도행전의 기근 방문에 대한 설명은 너무 간략해서 침묵을 통해서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기근 방문과 갈라디아서 2장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단, 바나바와 사울이 모두 참석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왜 갈라디아서 2장에서는 기근 방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들이 하고 있던 일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일이었나요? 그러나 갈라디아서 2.10절은 그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요청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몇몇 사람들은 주장을 펼쳤는데, 저는 이것이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며, 이 입장이 합리적인 입장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아마도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것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계시를 그들은 사도행전 11장 28-30절의 예언과 동일시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문맥을 보면 갈라디아서 1장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계시의 표현이나 계시는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절의 계시 때문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 말할 때, 그는 아마도 갈라디아서 2장 1-10절에서 그가 옹호하고 있는 그에게 계시된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 기근 방문과 동일시되는 갈라디아서 2.0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은 그것이 갈라디아서의 연대를 더 앞당기도록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문제는 그것이 로마서보다 다소 빠르기는 하지만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와 같은 시기는 아니지만 바울의 로마인으로서의 삶의 시기인 것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날짜를 기준으로 이를 수행하려는 경우 실제로는 다른 방식으로 논쟁하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전쟁이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아직 갈라디아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령은 갈라디아에는 적용되지 않고 수리아와 길리기아에만 적용됩니다. 여섯 번째 주장은 할례 등에 관해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15장이 기근 기간 동안 제기되었던 이전 주제를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논리에는 가장 간단한 솔루션이 가장 좋은 솔루션이 되는 경향이 있는 오컴의 면도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해결책은 같은 주제를 다루는 갈라디아서 2장과 사도행전 15장이 같은 방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주제는 언급되지 않은 곳에서 앞서 기근 방문에서 다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언급하는 것입니다. . 기근 방문 견해에 반대하여 제가 제시해 온 주장 외에 몇 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5장을 나타내는 이유에 대한 몇 가지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공의회는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와 동일합니다. 우선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디도가 언급됩니다. 바울은 그를 알려진 것으로 언급합니다. 갈라디아서.

아마도 디도는 갈라디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마도 그는 그곳을 방문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마도 갈라디아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과 12장은 바울의 선교 여행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가 갈라디아 사람이었다면 기근 방문은 디도의 회심 이전이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은 흔히 선교 여행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디도는 아마도 기근 방문이 일어났을 때 아직 회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확실히 회심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3장과 14장에서 사역을 할 때쯤에 그는 사도행전 15장에 의해 확실히 회심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5장과 갈라디아서 2장 사이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두 공의회는 동일한 기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 다 동일한 기본 결과를 갖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두 가지 모두에서 인정됩니다.

지도자들은 이방인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데 두 가지 모두에 동의합니다. 피터도 참여했고 제임스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기근 방문에 참여했던 것처럼 그들도 참여했습니다.

물론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지만 침묵만으로 논쟁을 벌일 수는 없습니다. 내 말은, 누가는 바울이 언급한 모든 것을 언급할 의무가 없으며 그 반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루크는 폴의 수집품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24:17에서 그것을 언급하지만 그것이 그의 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의 설명과 관련이 없다고 거의 완전히 생략합니다. 그가 강조하려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것이 아마도 바울이 바라는 모든 것, 즉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화해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거나 아마도 누가가 글을 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 자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Luke는 Paul의 수집품을 알고 있지만 그의 이야기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거의 완전히 생략했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주석가인 조셉 피츠마이어(Joseph Fitzmeyer) 는 그 어떤 차이점도 두 보고서의 실질적인 합의를 훼손할 만큼 중요하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이 누가의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교회가 잘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예루살렘 회의에 대한 여러 증언입니다.

사실 그들은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일종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비록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장까지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을 때 불행한 상황으로 인해 다시 논의해야 했지만 말입니다. 이제 바울이 선교지로 돌아가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지로 돌아가지만 함께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다 헷갈린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코스의 본질은 단지 당신이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져다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15:36부터 41절까지의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실제적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경우에는 바나바의 힘이었고 바울의 힘이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두 사람의 재능이 충돌하게 된 이유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때로는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 가장 큰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문학은 서사시 시대에도 영웅들의 실패를 보고했습니다.

판사는 그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리스-로마 전기 작가들의 표준이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그 이전에도 그리스-로마 전기 작가들은 영웅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이 표준이었습니다.

그리스 서사시는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왔습니다.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은 이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그들이 보통 양탄자 아래로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가는 새로운 바울과 실라 팀, 아마도 바나바와 마가 팀이 키프로스로 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인연이 있었던 곳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영역에 도달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완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마크를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마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마크는 우리가 평소처럼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리스어로 사용된 언어는 다소 심각한 분열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영원한 적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바울은 편지에서 나중에 바나바를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 언급합니다. 그는 그에게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생의 현 시점에서 함께 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로 이루어진 이 새로운 사역팀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 이름이 없는 바나바와는 달리 실라도 분명히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섭리적인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16:37에서 로마 시민들을 지적할 수 있는 빌립보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략적 이유로 계획된 분할이 아닌 분할이 두 사람 사이에 몇 가지 주요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중 어느 것도 그것이 좋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의 문맥과 대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께서 공의회에서 어떻게 합의를 이루셨는지 살펴보고, 공의회 직후에 그들이 어떻게 분열했는지 살펴보세요. 그러나 사도행전 16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적어도 그와 함께 일하기 위해 젊은 사람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Mark는 아니지만 그는 대신 Timothy를 데려올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그가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 출신입니다. 그는 아마도 길리기아를 거쳐 북쪽으로 가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누가는 그렇게 많이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길리기아에서는 상황이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북쪽으로 간다. 분명히 계절은 그가 황소자리 산맥을 넘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겨울에는 그게 매우 힘들겠지만, 특히 겨울이 아닐 때 산을 통과할 수 있는 킬리키아 관문이라는 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에 바나바와 함께 전도했던 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바울 자신이 선두에 있습니다. 그에게는 바나바가 없었으며, 새로운 지역으로 가기 전에 혼자서 이 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가서 이미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 한 곳인 리스트라에서 그는 신자인 디모데를 만난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이 그곳에 있을 때부터 계속해서 신자였습니다.

그는 토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자랐지만 아버지가 아닌 어머니에 의해 유대교에서 자랐습니다. 유대교 신앙으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는 아이가 할례를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이는 많은 그리스인과 로마인에게 잔인하고 미개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제 유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방인과의 통혼이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일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덜 엄격했는데, 특히 처음부터 유대인이 별로 많지 않은 리스트라나 데르베와 같은 곳에서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내 말은, 선택의 수가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6장 3절에서 우리는 디모데의 이방인 아버지가 아마도 그에게 할례 받는 것을 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를 이방인으로 여길 것입니다. 후기 탈무드 법에 따르면, 당신의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면 당신은 유대인으로 간주되지만 그의 어머니는 아마도 이 시점에서 그 규칙이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그는 할례를 받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를 이방인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를 이방인이 되기에는 너무 유대인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지위를 표준화하는데, 이는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즉 랍비들이 제시했던 고대 세계에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 그렇다면 유대교 측면에서 부모님의 지위를 기준으로 귀하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로마법은 부모 등을 기반으로 로마 시민권과 관련하여 귀하의 지위가 무엇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명을 위해 그것을 표준화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따르면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바로 그 바울이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수호하고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선교를 위한 것이고, 상황화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교를 위해 하는 일과 구원을 위해 하는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는 구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약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요구 사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점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외에 그가 아모스를 대하는 방식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선교를 위해 우리는 기꺼이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통스러운 희생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바로 여행을 갈 수는 없을 것이다. 며칠은 기다려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임무 팀이 강화되었습니다.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으며 바울은 성령으로부터 긍정적인 인도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움직이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지만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지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Paul이 팀을 이끌고 있는 지금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때로는 삶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알려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Paul은 부정적인 지침을 받았지만 긍정적인 지침을 너무 많이 받지는 않았습니다. 프리기아의 대부분은 로마 남부의 갈라디아 속주에 속해 있었습니다. 음, 로마 속주, 즉 로마 속주 갈라디아의 남쪽 부분입니다.

북 갈라디아는 인구가 적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도 그것이 나온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바울이 실제로 북갈라디아에서 사역했으며 그것은 사도행전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바울이 남 갈라디아를 언급하지 않을 때, 비록 그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고, 그가 갔던 대부분의 다른 장소들이 그의 서신에 나타나더라도,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바울은 남갈라디아로 갔습니다.

북갈라디아에 가서 사역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구가 더 적었습니다. 로마 식민지에 비해 덜 발전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남부 지역과 달리 그곳은 유대인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북갈라디아에 사는 갈라디아 민족인 프리기아인이 아니라 갈라디아 민족에 대해 말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주로 지방의 명칭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인 여러분, 바울이 말할 때, 그는 갈라디아 지방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방에는 프리기아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도행전에서 그가 분명히 관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아나톨리아 내륙인 아나톨리아에 대한 전문가인 사람들은 윌리엄 램지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대표적인 아나톨리아 고고학자인 스티븐 미첼(Stephen Mitchell), 아마도 이전 세대의 대표적인 아나톨리아 고고학자였을 바바라 레빅(Barbara Levick)도 있다. 아나톨리아 고고학자들은 바울이 북갈라디아가 아닌 남갈라디아로 갔다는 데 동의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는 대다수의 신약 학자들도 확신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전히 남부 갈라디아, 브루기아 갈라디아, 그리고 6절에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 우리는 그가 부정적인 인도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는 성령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가는 것을 금지받았습니다.

그는 아시아에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자, 여기서 아시아가 의미하는 것은 로마의 아시아 속주입니다. 그는 이미 아시아에 있어요.

사실 복음은 아시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와 로마의 기준에 따르면 아프리카 근처의 아시아인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있던 곳에서 서쪽으로 오늘날의 터키 서부인 소아시아 서부에 있는 이 로마 아시아 속주까지 서쪽으로 가는 주요 로마 도로가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것이 금지되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아니오가 일시적인 아니오일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지만 바울은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작은 곳에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가 다음으로 간 곳은 7절에 미시아를 상대로 끝났다고 합니다 .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되었지만 아마도 그것이 Kata를 번역하는 가장 가까운 방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있는 곳에서는 우회전하여 북쪽의 비두니아로 갈 수도 있었고, 좌회전하여 무시아 와 서쪽의 로마의 아시아 속주인 아시아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8절에서 무시아를 통해 여행합니다. 이제 일부 번역에서는 무시 아라고 말하지만 아마도 무시아 를 통해서 더 잘 포착할 것입니다. 이 명칭 중 일부는 사람들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사용되었지만 아마도 그가 북서쪽 미시아에 있는 트로아스로 북서쪽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미시아를 거쳐 갔을 것 입니다 . 트로아스는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정식 이름은 알렉산드리아 트로아스(Alexandria Troas)입니다. 그곳에는 십만 명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이는 고대 기준으로 볼 때 매우 큰 숫자였습니다.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로마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트로이인들에게 보낸 편지 같은 것은 없지만 바울의 편지에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올드트로이 근처에 있어요.

호머의 일리아드와 일반적인 그리스 문학에 익숙하시다면, 호머의 일리아드는 그리스인들이 그것을 그들의 정경, 즉 다른 것들에 대한 문학적 기초로 여겼던 것과 같았습니다. 그것은 일어난 트로이 전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글쎄, 이것은 전설이지만 아마도 트로이 전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리아드의 많은 세부 사항은 전설적이지만 종종 기원전 1186년, 1196년 경으로 추정되므로 이 시간보다 천년 이상 전입니다.

그래서 트로이 전쟁은 그리스와 로마의 관점에서 유럽의 아시아 침략으로 이해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륙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방식은 그리스인들이 동쪽의 모든 것을 아시아로 정의했다는 점에서 일종의 유럽 중심적 발명품입니다. 그들 자신과 서쪽은 유럽이었고, 지중해 남쪽은 아프리카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딴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그들은 몰랐다. 따라서 그리스 세계와 페르시아 세계가 된 것, 그들이 아시아 세계로 간주한 것 사이의 경계는 그리스와 현재 터키 사이의 경계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주로 침략했던 곳은 알렉산더 대왕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자신을 트로이 전쟁과 비슷한 일을 하려는 새로운 아킬레스로 여겼고, 자신들을 유럽이 아시아를 침공하거나 그리스가 아시아를 침공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트로아스에 왔고, 하나님께서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독자들이 그 반대라고 여겼을 수도 있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 무렵에는 문화가 양방향으로 퍼졌습니다. 알렉산더 이후 그리스 문화는 아시아의 영향을 받았고, 아시아 문화는 서아시아 문화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문화적 중복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인과 로마인은 여전히 이러한 지리적 구분선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트로아스에서 마케도니아로 출발하여 아시아 신앙이 유럽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투적인 정복이 아니라 평화의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향력은 정복자들에게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전해지는 구원의 좋은 소식을 통해 긍정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유대교와 기독교도 아시아 신앙으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중동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서아시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 몇 가지 혼란스러운 지침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금하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한 긍정적인 지침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트로아스에서 바울은 꿈이나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그와 다른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그것을 해석하고 그 꿈이 마케도니아로 갈 것이라는 뜻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바울은 꿈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독특한 옷차림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 사람이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누구인지 추측했습니다. 아마도 알렉산더 대왕은 조각상을 통해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누군가 추측했을 수도 있고 아마도 루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에게 어떤 단서도 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중 하나라면 마케도니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줄 것입니다. 마케도니아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빌립보 간수일지도 모르지만, 만약 그렇다면 누가가 우리에게 말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빌립보로 항해합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은 아시아로 갈 것입니다. 그곳에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와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도 중요합니다. 지침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들이 이 시점에서 단지 방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다행이다.

적어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꿈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때로는 꿈이 별 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붙잡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빌립보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매를 맞았습니다. 그들은 베뢰아에서 쫓겨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마케도니아에서 쫓겨납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최소한 어느 정도의 지침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여기에 있기를 원하셨으니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이 가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글쎄, 그들은 트로아스에서 항해했고 항해에는 이틀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즉, 일년 중 적절한 시기라는 뜻입니다. 좋은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서는 계절풍과 그들이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역항 항해에 약 6일이 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연중 각 시기에 바람 패턴 등에 대해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사모트라케를 지나간다고 하더군요. Samothrace는 거의 절반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멀리서도 사모트라케를 알아볼 수 있는 거대한 산이 있습니다. 이틀간의 항해이므로 하룻밤 사이에 사모트라케에 정박했을 수도 있습니다. Samothrace는 Kiberi 등 의 신비로 유명했지만 아마도 Samothrace에서는 그다지 많은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마케도니아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빌립보로 들어오는 과정을 16장 11절부터 20절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절부터 15절까지 빌립보의 첫 반응을 읽습니다.

나는 산간 사모트라케(Samothrace)가 눈에 보일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항구가 될 것입니다.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들이 마케도니아에 오면 네아폴리스로 옵니다. 그곳은 남마케도니아에서 가장 좋은 두 항구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카로, 17장 1절에서 다루겠습니다. 네아볼리는 빌립보를 직접 섬겼던 항구 도시 또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틀 간의 항해는 내가 언급한 것처럼 겨울 동안을 제외하고 순풍이 불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바다 여행은 더 빠르고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멀리 여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곳은 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여행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지점 중 하나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왔을 때 그들은 아마도 하루에 약 100마일을 이동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네아폴리스.

상징림 산 건너 북서쪽으로 약 10마일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 그리고 이곳은 이냐시오 길(Ignatian Way)의 동쪽 끝이었습니다. 서쪽 끝은 그리스 반대편, 즉 그리스 북쪽에 있는 아드리아 해 항구인 디라티움(Dyrratium) 으로, 그곳에서 이탈리아로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는 기원전 42년부터 자랑스러운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내가 자랑스러운 로마 식민지라고 말할 때, 그들은 라틴어 사용을 강조했고, 라틴어 비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이애나에 대한 헌신이 매우 컸습니다. 음, 전통적으로 마케도니아인은 그리스인과 더 많이 동일시되었으며 그녀는 아르테미스라고 불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그녀가 다이아나였습니다. 그들은 매우 단호하게 로마 문화와 동일시되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빌립보 시민이었다면(모든 주민이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루디아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립보 시민이라면 이로써 로마 명예시민이 된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그곳에 가본 적이 없더라도 그것은 로마 식민지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빌립보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인들은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곳의 시민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실히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빌립보는 비록 로마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로마 내전과 로마의 초기 마케도니아 정복으로 인해 바울이 방문했던 많은 도시 지역과 달리 상업 중심지라기보다는 농업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여전히 식민지였으며 바울이 사역하기를 원했던 곳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였지만 여기서 빌립보는 누가가 그곳을 지방의 첫 번째 도시라고 부릅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최상위를 의미하기 위해 첫 번째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제가 고대 문헌에서 찾은 모든 곳에서는 예를 들어 Strabo의 지리를 포함하여 그가 다른 도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이것을 첫 번째 도시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도시는 주요 도시, 주요 도시라는 뜻입니다. 빌립보는 이 지방의 주요 도시였으며 데살로니가와 함께 그곳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어떤 연결고리를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회당이 없지만 여기에 유대교를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면 물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손 씻기 등을 연습하고 기도 시간에 대한 의식적인 정욕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곳을 찾으러 갑니다. 기도하는 장소, 용어는 회당을 의미할 수 있지만 누가는 그것을 의미할 때 대개 회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기에는 건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찾은 것은 일부 여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적어도 후기 전통에 따르면 회당을 구성하려면 적어도 10명의 유대인 남성으로 구성된 정족수가 필요합니다.

제가 한 마을에 자주 방문했던 회당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셀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 남성 10명의 정족수를 확보하기에는 때로는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곳은 개혁된 회당이었기 때문에 여자들도 세어 보았지만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몇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정족수를 확보하기 위해 밖으로 나오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어도 물 근처의 순수한 장소에서 개최되어야 했으며 발굴은 고대 회당에서 그것이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회당을 지을 만큼 인원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기도회는 가질 수 있었습니다.

13절에 따르면 그들은 그들을 찾으러 강가로 나갔습니다. 자, 무슨 강을 의미하는 걸까요? 글쎄, 가장 가까운 실제 강은 Gengites 였습니다 . 스트리 몬강(Strymon River) 의 지류이다 .

빌립보에서는 약 1.5마일 또는 2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에 있습니다 . 그러므로 그것은 바리새인의 기준으로 볼 때 안식일의 여행 그 이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도시 한쪽에 있는 크릭 크로니테스(Creek Cronites) 라고 생각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도시의 반대편에 있는 말라버린 시냇물이라고 생각 했는데, 실제로는 전통이 있고 거기에 교회가 있는데, 이곳이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아마도 겐기테스 강 근처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정족수조차 없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여성들은 아마도 안식일 여행에 대한 유대의 바리새인 표준에 대해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2,000큐빗 이상 걷지 않는 것보다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기로 가서 그들을 찾습니다. 성문 밖에 있다고 하네요. 글쎄, 이 모든 제안은 성문 밖에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 성문일 것입니다. Gengites 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면 아마도 Philippi의 식민지 아치 길일 것입니다. Via Agnesia는 이탈리아 쪽에서 이어지는 로마 도로입니다. 그리스 북쪽에서 마케도니아를 거쳐 트로아스까지 바다를 잡을 수 있습니다.

주로 육로 여행 측면에서 로마와 소아시아 사이의 주요 동서 통로였습니다. 그 길은 빌립보를 거쳐서 겐기족 에게로 나아갔습니다 . 16:14에서 그들은 이 여성들을 발견하는데, 여성들은 지역 신앙을 따르지 않음으로써 잃을 지위가 적기 때문에 비지역 신앙, 아시아 신앙 등에 더 개방적인 경향이 있었습니다.

보수적인 로마인들은 이에 대해 종종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여성들이 유대교와 기독교 운동을 포함한 동양 종교를 추구하고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요세푸스는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유대교를 따랐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완전한 개종자들에게 적용되었는데, 이들에게 할례는 아마도 유대인 여성에게 있어서 성인으로서 고통스러운 경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그 경험을 별로 기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당에 있던 사람이 제게 말하길, 오늘날 유대인 알코올 중독자가 왜 그렇게 적은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아기 때 할례를 하기 전에 그들의 혀에 포도주를 조금 넣었더니, 얘야, 그렇게 아프면 별로 안 하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자랐기 때문이다. 어쨌든 그는 농담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이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더 많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개종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들은 잃을 것이 적었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찾는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글쎄요, 그리스 문화에서는 여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성이 거주하는 마케도니아에서는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인이라고 말할 때 그리스인조차도 여성에게 공적 책임을 부여한 한 영역은 스파르타보다는 아테네 문화와 같은 아티카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인들이 여성들에게 공적 책임을 부여한 유일한 영역, 특히 종교는 여성들이 이곳 빌립보의 다이아나 숭배에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마케도니아 여성들은 역사적으로 그리스 여성들보다 더 자유로웠습니다. 글쎄요, 바울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여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부 유대 사람들은 그 점을 의심스럽게 여겼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8장 1~3절에서 그랬듯이, 그리고 물론 7장 36~50절에서 여자가 발을 씻는 앞 구절에서처럼 적들이 있고 지지자들로 여자들이 있었다면 보수적인 유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에 대해. 그리고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무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불만의 원인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에게 여자 지지자들이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 너 여자 밥 주는구나”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울은 도달해야 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시작할 수 있는 곳에서 시작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그녀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14절). 루디아는 일반적인 이름이었지만 두아디라가 고대 루디아에 있었기 때문에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리디아 지방에서 매매된 하인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하인에게 리디아라는 별명을 붙이거나 그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두아디라는 염색공 조합과 직물로 유명했습니다. 비문에 따르면 다른 두아디라 상인들도 마케도니아에서 자주색 염료를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이 리디아의 직업이 될 것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인 대다수가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종종 그렇게 하여 번영을 누렸습니다. 마케도니아에는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것은 매우 수익성이 높은 거래였습니다.

이름과 직업은 많은 학자들에게 그녀가 해방된 여성이었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것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확률의 수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해방된 여자, 즉 전직 노예였을 수도 있습니다.

해방된 사람들은 종종 이전 노예 소유자의 사업에서 대리인으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비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보라색 염료를 거래하는 많은 상인들이 사실이었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해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리디아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여성들이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예 남성도 관리자가 될 수 있듯이 노예 여성도 관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그녀가 부유했다고 말할 때 , 그녀는 노예로서도 약간 부유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은 종종 부업으로 약간의 돈을 보유하는 것이 허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노예 소유자에게 속했지만 로마법은 실제로 노예 소유자가 그렇게 한 경우 노예가 그것을 상당한 정도로 통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 관리자가 자신의 수입을 가지고 있는 경우 관리자의 경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해방된 사람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아니면 단지 자유로워질 수도 있지만 아마도 해방된 사람일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보라색 장수로서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것은 지중해 세계와 페르시아 동쪽에서도 사치품이었습니다. 그것은 천년 넘게 지중해 세계에서 사치품이었습니다.

특히 사치품으로서 보라색 염료의 주요 공급원은 티레 근처의 무렉스 조개였습니다 . 보라색을 짜내려면 이 연체동물을 많이 으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복에 사용되었습니다.

보라색 옷을 조금 얻으려면 천 개를 짜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그것이 보라색의 주요 원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체동물을 짜낸 덩어리를 베이스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라색 염료의 냄새도 별로 좋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그것은 상태의 상징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분 상징을 위해 냄새를 기꺼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반적으로 아주 아주 부유한 물건으로 거래되었습니다. 이제 모조 보라색도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소아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당신은 붉은 염료를 얻을 수 있는 케르메스 참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케도니아 근처에서는 모조 보라색을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이 기간에 가장 비싼 형태의 보라색을 판매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더 싼 것을 팔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아마도 부유한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이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처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보라색 염료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두장이 시몬의 집처럼 냄새가 나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보라색으로 물들인 물건을 파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환대. 바울은 루디아를 만나기 전까지, 그리고 지금 함께 있는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그때까지 여관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것은 확실히 이상적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다른 유대인 가족에게서 환대를 받는 것이 더 나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다면 여관으로 가야 할 것이다. 여관은 때로는 사람을 강탈할 수도 있는 부도덕한 여관 주인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사람들이 밖에 있으면 물건을 훔칠 수도 있었습니다. 여관은 유대 문화에서도 부도덕한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선술집이 그 자체로는 부도덕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았지만 선술집의 바텐더는 종종 쓰레기 더미에서 구출된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아기로서. 이제 그들은 노예 매춘부로 자랐습니다.

그들은 여관의 나머지 부분에서 매춘부로 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곳은 유대인들이 머물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빈대 같은 것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2세기 후반 요한의 행전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소설이에요. 이 모든 빈대를 가지고 있고 존이 그들을 제거하고 싶어하는 소설적인 행위 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명령합니다. 당신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빈대를 삼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합니다. 불이 없습니다.

그가 명령만 하면 그들은 일렬로 늘어서서 방 밖으로 나간다. 그러나 어쨌든 환대는 고대 지중해 세계의 주요 가치였으며 유대교의 주요 가치였으며 다른 많은 문화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리디아는 환대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남자나 여자를 대접하는 것은 영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의 후원자 또는 후원자로 기능합니다. 가장 기술적인 로마 의미의 후원자가 아니라 오늘날 신약성서 학자들이 사용하는 보다 일반적인 방식의 후원자입니다.

공직에 출마한 로마 공화국의 어떤 사람이 그에게 훌륭한 후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보다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녀는 후원자 또는 후원자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 장 8절부터 11절까지 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 거기서 수넴 여인이 “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 머물도록 방을 마련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의 경우는 다소 덜 자발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그녀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거기에는 좀 여유로운 남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녀는 가장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것은 그녀에게 하인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과부일 수도 있지만 자유인으로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 많은 선택권을 갖고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 스캔들의 원인을 찾고 있다면, 어-오, 그 여자와 함께 지내는 거죠. 글쎄, 그들은 그녀와 혼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내 말은,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녀의 가족 전체가 거기에 있지만 이것은 여전히 고발자들이 스캔들로 사용할 무언가가 될 것입니다. 마치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제자들과 함께 여자들이 따라오도록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와 바울에 대한 설명을 보면 이들이 매우 도덕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을 위해서라도 그들은 일부 전통적인 경계를 깨뜨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다만 원수가 있으면 비방할 명분을 찾을지 모르지만 빌립보에서는 그것 때문에 비방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이유로 비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616년부터 22년까지의 구마와 경제학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당신을 비난하려는 은밀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음, 여기 노예 소녀 Paidisce가 있습니다 . 아마 아주 어리겠죠. 이 용어는 누가복음의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56절에서 베드로를 비판하는데 사용되었는데, 베드로는 어,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단어는 12장 12절과 13절에서 마가 요한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집 하인 흐로다에게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로즈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매우 긍정적입니다. 매우 긍정적인 모습을 인물과 대조하면 다소 양면적입니다. 어, 그녀는 노예 소유자들에게 착취당하고 있어요.

그들은 실제로 여기서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그녀는 영에게 착취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음, 루크의 여성관에 관한 한, 음, 어떤 사람들은 "아, 루크는 이 여성의 목소리를 억압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이 그녀에게 잠잠하라고 명령한 것은 누가복음 4장에서 귀신 들린 남자가 소리치고 예수께서 회당에서 그를 잠잠케 하신 장면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것은 정확히 그것과 평행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성을 침묵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무덤에 있었던 여자 선포자들, 어, 루디아와 그 집안 사람들이 여기서도 매우 호의적으로 보였고 로다도 그랬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내 말은, 로다에 대한 이야기에는 유머가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로다의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의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그녀뿐이다.

이는 Peter의 비용이며 특히 가족 구성원의 비용입니다. 로다는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무덤에서 진실을 말했지만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여인들과 비슷합니다. 글쎄요, 바울은 처음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영을 쫓아내고 나면 실제로 뒤따르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의 종들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 그리고 당신은 그것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하지만 어, 이방인의 맥락에서 이는 신들이 많고 이들이 누구인지를 상대화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악마가 당신을 위해 증언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서 귀신이 자신의 정체를 증언하고 쫓아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은 그것을 쫓아냅니다. 그는 그녀를 영적으로 해방시킵니다.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주인의 노예이지만 영적으로는 해방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처럼 그 여자는 나중에 그 주인들에게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존재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리디아와 다른 사람들은 바울이 한 일을 이어받아 나중에 그녀를 육체적으로 해방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시점에서 그녀의 자유를 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영적으로 해방되었습니다. 바라건대, 그녀는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지만, 노예 소유자가 일반적으로 염려하는 한 노예는 여가 시간에 어쨌든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2세기 교회에서 우리, 비티니아의 총독인 플리니우스는 실제로 그가 고문을 받고 심문하고 있는 교회의 지도자들 중 두 명은 노예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언어를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교회의 집사였습니다. 하지만, 음, 노예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교회는 공식 업무가 시작되기 전에도 아침 일찍 모여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Pythoness의 정신은 말 그대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 그녀, 어, 번역에서는 종종 점술의 영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러나 점술의 영은 매우 강력한 점술의 영이었습니다. Pythoness는 Apollo의 Delphic Oracle, Apollo의 Delphic Oracle의 여사 제에게 적용되는 용어였습니다. 그녀는 Pythoness라고 불렸습니다.

그녀는 맨틱했습니다. 즉 그녀는 광란 속에서 예언했거나 적어도 종종 광란이었다고 일컬어집니다. 델포이의 신탁은 너무나 유명했습니다. 심지어 헤로도토스도 크로이소스가 몇 세기 전 페르시아 왕 키루스 시대에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크로이소스는 리디아의 왕이었는데, 이 나라에서, 저 나라에서 전쟁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신탁이 가장 정확한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신탁에 문의했습니다. 그리고 델포이의 신탁은 그가 침대 밑에 무엇을 숨겼는지 말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이 매우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나는 페르시아 왕과 페르시아와 메대 사람들과 싸우고 싶습니다. 고레스. 그럼 전쟁을 할까 말까? 그리고 응답이 돌아왔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위대한 왕국을 파괴할 것입니다. 글쎄, 불행하게도 크로이소스는 그 반응에서 모호함을 포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키루스와 전쟁을 벌였으나 패배했고 그의 왕국은 페르시아 제국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화형에 처해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 나는 나만의 위대한 왕국을 파괴했다.

그리고 헤로도토스에 따르면 키루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것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소식을 듣고는, 안 돼요, 안 돼요, 크로이소스를 여기로 데려오세요. 그를 화형에 처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 이거 좋아요'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어쨌든, 모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어쨌든 델포이의 아폴론 여사제는 유명했습니다.

다른 유명한 신탁도 있었는데, 도도나에는 참나무가 있는 제우스의 신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폴론은 그가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델로스에서 예언적 신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러나 특히 델파이가 가장 유명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처녀였습니다. 그녀는 젊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아마도 이 Paidiske 의 나이에 맞을 것입니다 .

그것은 젊은 처녀들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1장의 처녀들, 즉 예언을 하는 빌립의 네 처녀 딸들을 대조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처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나이 때문에 그들은 아마도 실제로는 어린 10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여겨지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종류의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 이 여자가 아닌 Pythoness가 앉을 것이라고 하더군요 . 하지만 Delphi의 Pythoness는 삼각대에 앉아 마피틱 증기가 올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고학에 따르면 아마도 그것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것이 여성에게 영감을 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통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의 말을 정리하고, 좀 더 설득력 있게 만들고, 좀 더 시적으로 만들고 , 필요할 경우에는 좀 더 모호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 그러나 Lucan은 Pythoness의 소유물을 매우 생생한 용어로 묘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 문헌의 다른 곳에서는 그녀가 아폴로의 영혼에 사로잡혀 광분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제 그녀가 Pythoness라고 불리는 이유는 위대한 용 Python을 죽인 Pythian Apollo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요한계시록 12장의 특정 계시록 주석에서 이에 대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이 젊은 여성이 반드시 델파이에 가본 적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녀가 Pythoness의 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이것은 작은 악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은, 이것은 강력한 악마입니다.

Legion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강력한 악마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은 유대교 본문에 흔히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지만 이교도 자료에도 나타납니다. 그곳에서는 유대 신을 가리킬 수도 있고 제우스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방인의 상황에는 어느 정도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교 주술에서는 종종 유대 신과 동일시되는 최고의 신이 가장 강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술에서도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다고 하십니다. 글쎄, 흥미롭게도 악마가 문제를 일으킬지라도 하나님은 때때로 악마의 증언을 선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9장에서 그 사실을 봅니다.

내 말은, 당신은 악마의 말을 듣고 싶지 않고 악마가 항상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 말은, 그게 그들이 악마인 이유라는 거야. 하지만 어쨌든.

하지만 베들레헴의 별은 여기 동방 박사가 점성가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있어요. 그것은 성경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은 어떤 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이교도적인 것도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는 그 언어를 어디서 구했습니까? 아마도 그는 이 젊은 여인이 구원의 길을 선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머물고 있는 후에도 그들을 믿습니다.

16:18. 퇴마사들은 종종 낮은 영혼을 쫓아내기 위해 더 높은 영혼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19장 13절에서 스게와의 일곱 아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고 하는 장면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행전은 그와 관련하여 그의 행동 중 하나의 예를 제공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즉, 바울은 예수 셀리아흐 , 즉 예수를 대신하여 말하는 그의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대신하여 영에게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옵니다. 이제 좀 더 회의적인 일부 사람들은 영이나 악마를 전혀 믿는 사람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학자들이 영혼 빙의 트랜스에 대해 널리 문서화했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인류학자 중 많은, 아마도 대부분은 이것이 실제 영혼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날 일부 사람들은 적어도 토착적 이해를 활용하고 우리의 사업은 토착적 이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것이라고 말하는 데 더 개방적 입니다 . 그러나 인류학자들은 소유 트랜스에 대한 거부가 인류학적으로 평평한 지구인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될 정도로 소유 트랜스에 대해 널리 문서화했습니다.

사회의 74%가 영혼 소유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970년대 자료에서 나온 것입니다. 더 많은 사회를 연구했기 때문에 지금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다른 지역보다 더 높습니다. 여러 사회마다 이에 대한 다양한 문화적 표현이 있지만, 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많은 표현이 매우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트랜스 상태가 발생할 때 일관된 정신생리학적 기질이 있습니다.

인류학자들은 일반적으로 이를 악령의 영향으로 토착적으로 또는 지역적으로 해석되는 변경된 의식 상태로 정의합니다. 죄송합니다. 악령이 아닙니다. 종종 그것은 좋은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지에서 해석하지만 외계인 정신입니다.

소유 트랜스 동안에는 사람들이 과각성 테스트를 받았고 EEG 판독을 통해 테스트된 신경생리학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이 모든 과잉각성 사례가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트랜스 상태의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ADD입니다. 그것이 아마도 제가 매우 빠르게 말하는 것을 듣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다룰 수 있도록 빨리 끝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뇌 활동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유 트랜스를 대표하는 변형된 신경 생리학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일을 하는 동안에도 이러한 소유 트랜스를 가질 수 있습니다. 소유 행동. 인류학자인 Raymond Firth와 저는 여기 제 화면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Raymond Firth는 때때로 인류학자가 실제로 같은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스스로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를 지켜보고 있거나 대결하고 있는지.

따라서 이를 행동의 성격 변화, 목소리 높이의 변화 등으로 표시하세요. 요람 무가리는 기독교인이 되기 전 아프리카 전통 종교의 퇴마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어야 했던 일들에 대해 나에게 말해줄 몇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빙의된 사람들이 거의 뱀처럼 등을 따라 벽을 타고 천장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체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기독교로 개종했고 지금은 Gordon-Conwell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고 지금은 영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쯤엔 다 끝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경우에는 군단과 사도행전 19장의 스게와의 일곱 아들의 경우에 마귀 들린 사람과 같은 경우 때문에 이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빙의 황홀경이 폭력적인 행동으로 표현됩니다. 머리를 부딪히는 것,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마가복음 9장에도 나와 있음) 인도네시아와 같은 곳에서 몸을 베는 것, 아주 멋진 셔츠, 불을 걷는 것, 통증에 대한 면역이 있는 곳입니다.

때로는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러한 일 중 일부는 다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악마가 없어도 폭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다른 요인으로 인해 의식 상태가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의식 상태가 바뀐다는 뜻이다. 그러나 분명히 악마를 나타내는 것, 악마가 존재할 때 항상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벽을 미끄러져 올라갈 수 있는 것과 같은 특정 오컬트 현상이 있습니다. 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비로운 현상. 많은 악귀 숭배 사례가 단순한 성격 장애나 신체적 질병일 수 있지만, 일부는 만지거나 방 안을 날아다니는 물체가 있는 경우 더 극단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목격한 친구들이 있는데, 정말 불쾌하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엑소시즘은 인류학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일부 문화권 에서는 이것이 빙의병에 대한 유일한 치료법으로 간주되며, 영혼을 믿지 않는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일부는 그렇다고 말하지만 아마도 대다수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은 지역 신앙을 수용할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입니다.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우리는 엑소시즘을 매우 자주 목격합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기독교인의 약 74%는 구마 의식을 목격했다고 주장합니다. 내 학생이자 카메룬 출신의 침례교인인 폴 모카케(Paul Mokake) 는 바다의 정령들이 쫓겨날 때 뱀처럼 몸부림치는 여자에 대해 나에게 묘사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종류의 것들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바다의 정령, 물의 정령, 강의 정령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단지 지역 전통, 지역 해석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바다의 정령 같은 것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요, 그들은 일종의 정령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팔 목사 Minna KC는 3년 동안 벙어리였던 세 자매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벙어리가 일반적으로 영이나 악마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이유로 신체적 질병을 앓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정서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인격이 우리 안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있으면 때로는 신체의 특정 부분이나 신경계, 마음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몸이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혼도 때때로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 이 세 자매는 3년 동안 동시에 동시에 벙어리가 되었는가? 그녀가 귀신을 쫓아냈고, 민나 KC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냈고, 그 동안 그들은 치유되었습니다.

로빈 스넬거( Robin Snelger ) 포트엘리자베스 소재 넬슨 만델라 메트로폴리탄 대학교 산업심리학과장. 글쎄요, 그의 생애 초기에 그는 자신을 조종하는 외계인 성격에 대한 자신의 이전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도움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의학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종류의 실행은 그리스도인을 통해 자발적으로 실행되기 전까지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쿠바의 유스페리나 아코스타 에스테베즈.

쿠바에 있을 때 그녀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녀는 1988년까지 영혼을 불러오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산테리아에 관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영혼을 불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파서 걸을 수 없었습니다. 1988년 어느 날 목사님들이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변의 의자는 뒤로 젖혀졌고, 갑자기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심했던 심장과 신장의 기능부전도 완치되어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영혼의 실체에 대해 질문할 때 일부 인류학자들은 이를 탐구했습니다. 내 말은, 대부분 그들은 지역 문화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연구가 있었습니다.

빅터 터너(Victor Turner)라는 유명한 인류학자의 미망인인 이디스 터너(Edith Turner)는 버지니아 대학의 인류학 강사입니다. 그녀는 인류학과 인본주의 저널의 편집자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잠비아 전통 아프리카 영혼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그들은 기독교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잠비아에서 진행된 아프리카 전통 영혼 의식 중에 그녀는 영혼 물질이 분출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이 얼룩이 그 사람의 등 뒤에서 자신의 눈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전통적인 기독교 관점에서 이 문제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학생들에게 영혼을 경험하도록 가르칩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인류학자들이 문제를 겪는 것처럼 기독교인인 우리 대부분도 문제를 겪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녀는 영혼의 실재를 믿으며 그것에 대해 솔직하게 주장했고 알래스카의 이누이트 인구 사이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인류학자 솔론 킴볼(Solon Kimball)은 아일랜드에서 현장 조사를 하는 동안 유령이 그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손이 그것을 통과했습니다. 그는 '아, 그건 환각임에 틀림없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때때로 독립적으로 같은 인물을 보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아마도 문화가 우리의 환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독립적인 것이므로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 세계 대다수의 기독교인은 영의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많은 서양인들을 설득했고, 그들 중 일부는 경험으로 인해 이에 대해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실 페루 주변 지역의 성경 번역자 한 분은 미안하지만 이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 준 분이 페루 출신이었는데, 남미의 전통 민족 가운데 그가 그들을 위해 성경을 번역해 주셨고, 그들은 그것을 믿었다. 그들 주위에는 영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니, 아니, 그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번역되었고 당신이 우리를 위해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번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니, 아니, 그건 진짜가 아니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볼 수 없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 전체에 걸친 미신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깨달음 반응은 매우 유명한 선교 인류학자가 지적한 것입니다. 그는 제가 신학 교육을 받은 것이 제가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인류학 교육을 통해 문화와 인간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이 사람은 Paul Hebert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그들은 중간 영역도 있다는 것과 우리 서구 문화가 너무 지나쳐서 목욕물에 아기를 버린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중요한 접근 방식은 각 사례에 대한 증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스콧 펙(Scott Peck)은 정신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악마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것은 단지 심리적인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악마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을 마주했다. 듀크 대학교 메디컬 센터의 정신과 명예 교수인 윌리엄 윌슨(William Wilson)과 다른 많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상담학 교수 데이비드 반 겔더(David Van Gelder)가 상담저널에 게재한 내용에 따르면, 16세 소년이 동물처럼 행동하던 중 벽에 걸려 있던 십자가가 떨어졌지만 그냥 넘어진 것이 아니었다. , 실제로 손톱이 녹았습니다. 그건 심리적 장애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와 다른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상담가, 기독교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였고 전통적인 정신의학적 또는 심리학적 방법으로는 그들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해 보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로 그 사람에게서 나왔습니다. 바보 들아 , 그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로서 그들은 이것이 간질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며 진정한 정신이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랍비학 분야 에서 매우 유명한 학자인 데이비드 인스톤 브루어(David Instone Brewer)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틴들 하우스(Tyndall House)에서 가르치는 기독교 학자이다. 초기에 그는 지금 하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정신과 의사가 되기 위해 여러 차례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번은 병원에서 회진을 하던 중, 병원 옆에 앉아 자고 있는 듯한 이 사람을 위해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신이 그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그 남자가 갑자기 그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내 것입니다. 그를 내버려두세요. 그는 그것이 매우 흥미로운 경험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약에서 읽은 내용은 매우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영혼을 믿지 않는다면 적어도 우리 중 영혼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할 이유가 있다는 것과 실제로 그것이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꽤 널리 퍼져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이 글을 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미 이것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사도행전 16장에서 읽은 내용이 매우 그럴듯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이것의 결과는 박해입니다. 이는 그럴듯할 뿐만 아니라 바울과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그가 빌립보에서 겪었던 고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세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친 Dr. Craig Keener입니다. 16회기, 사도행전 15장과 16장입니다.